

최상의 성욕촉진제?

본고는 계란의 우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강원대학교 교수이며 한국약물남용연구소장으로 있는 주왕기 씨가 "최상의 성욕 촉진제"란 제목으로 가정복지와 여약사('93, 4)에 발표했던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희극〈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의 내용은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가 친구의 돈부탁으로 자기의 배를 담보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그리고 돈을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살 1파운드를 제공한다는 증서를 써준다. 그러나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살 1파운드를 요구하는 유대인 샤일록에게 재판관 포사는 살을 주되 피를 흘려서는 안된다고 판결하여 샤일록은 패소한다. 이 희극은 당시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과 반 유대감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국인의 양면성

얼마전 한 영화(폴링다운)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물건을 팔아 주어야만 돈을 바꾸어 주는 한국인을 마치 샤일록 같은 인물로 다루었으나, 한국인에 대한 증오심과 반 한인감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은 어떻게 보면 쌍가면(야누스)의 얼굴 같다. 한 면을 보면 조용하고 겸손하며 근검절약의 표본형이다. 그러나 다른 한 면을 보면 시끄럽고 오만 불손하며 과소비 향락적이다. 뿐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천하에 못할 것

이 없다고 한다. 다만 한 가지, 신(God)의 '싸인'을 받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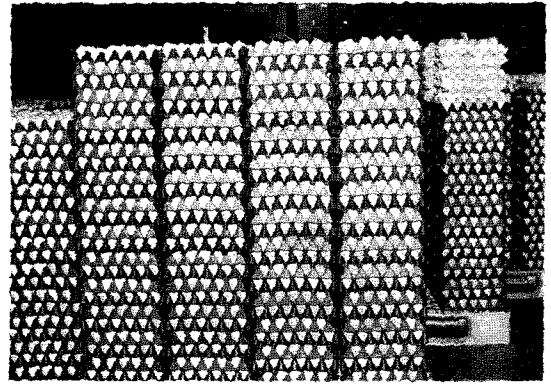
그래서 과거엔 돈으로 양반 죽보를 사서 일자 무식의 쌍놈이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었으며, 지금도 돈만 있으면 금딱지 붙은 국회의원 증도 사들여 거드름을 핀다. 그래서 돈없어 금뱃지 못단 사람들은 자기 팔자를 한탄하고 돈 많은 사람을 평생 저주하며 살아간다. 요즘 세태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다 보니 돈 벌려고 청와대와 암달려상을 사칭한 부정과 사기가 우리 주변에 무수히 난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뿐이라.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주체 못하여 향락과 퇴폐에 쓸어 붓고, 몸에 무리가 오자 정력에 좋다는 동·식물이면 닥치는 대로 싹쓸이 하여 지지고 삶고 회쳐 먹는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코뿔소가 그 '코뿔'때문에 애꿎게 죽어가고, 중국의 구렁이들이 수난을 당하며 우리의 개구리 알과 까치·까마귀가 천연기념물이 될 판이다.

정력은 심신의 활동력을 말한다. 그러니 정력제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 주는 것일게다. 건강한 육체는 각종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 될 것이고,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를 바탕으로 건전한 마음을 갖도록 하면 될 것이다.

최고의 정력제 술과 달걀

하지만 천박한 인간들은 정력을 섹스에 심지를 박고 있으니 그들에게 우리집(?) 대대로 내려오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비방을 가르쳐 주고 싶다.



비방을 가르쳐 주는 목적은 그들이 가련해서가 아니고 전세계의 동·식물 애호가들로부터 선량한 한국인과 나 자신이 도매값으로 비난을 받기 싫어서이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못 할게 없다는 과거의 유대인이 되기 싫어서이다.

수만가지의 약이 있다. 하지만 약리학적으로 진짜(?) 최음약(aphrodisiacs 또는 sexual stimulators)으로 구별되어 판매되고 있는 약은 아직 없다.

그러니 만큼 성이란 물질로만 해결될 수 없는 신비한 것으로 정신과 육체가 동시에 2중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일게다. 즉 육체적 상황과 정신적 상태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증권이 폭락하고 계가 깨진 상태에서 sex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질병으로 쇠약해진 육체로 sex가 행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무엇이 최고의 체력을 유지해 주고 최고의 음심(?)을 갖게 해주는 정력제일까. 식품 중 최저가로 살 수 있으며 가끔 세일도 하는 것인 즉, 다름아닌 '술과 달걀'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술은 최고의 정신적 최음약(psychological aphrodisiac)이고, 달걀은 최고의 육체적 최음약(physical aph-

rodisiac)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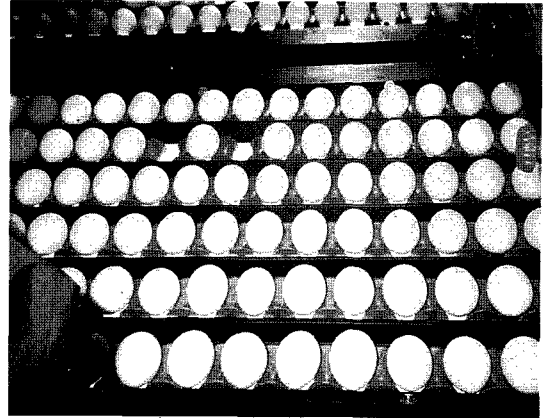
세익스피어의 〈맥베드〉 2막 3장에 보면 ‘술은(성적) 욕망을 자극시키지만 행위를 치를 수 없게 한다(alcohol provokes the desire, but it takes away the performance)’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이 성행위에 장애를 준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최고의 최음제임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고주망태가 되었을 경우이지 적당량의 음주는 최고의 최음약이다. 술의 무차별 공격성(?)을 따라갈 약은 아직 없다. 이 경우 우리는 ‘disinhibition’(탈억제)란 단어를 쓴다. 뭔가 보여 준다는 뜻이다.

그리고 달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흔히 달걀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 먹으면 동맥경화가 오고 그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면 단명한다고 어떤 이가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걀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체력이 국력임을 감안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같은 말을 한 사람들은 아마 공산당 후에들인가 보다.

정력식품은 다량의 콜레스테롤을 함유

그러나 ‘그’ 콜레스테롤이 최고의 최음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선은 남·녀의 성호르몬(여성에게는 아름다운 몸매를, 남성에게는 우람한 체형을 만들어 준다)이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모든 정력식품(?)을 분석해 보면 모두가 다량의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부터 방사 후에는 달걀을 참기름과 간장(소금)에 풀어 식음토록 했다. 문제는 많이 섭취하였을 때가 문제인데 서양인들의 주



식이 우유·달걀·육류임을 생각해 보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한 달, 한 해에 과연 몇개의 달걀을 먹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동맥경화 역시 부질 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필자는 과거 미국 대학에 머물 당시 라면만 먹다 영양 실조에 걸려 2년 간 달걀만(?) 삶아 먹은 적이 있다. 1일 사람에게 필요한 콜레스테롤 양은 1천 4백mg이다. 이중 1천mg은 체내에서 만들어지고 4백mg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 주어야 한다. 참고로 필자가 영국에 머물 때 그곳 아침식사를 소개해 보면, 돼지고기 소세이지 2개, 그리고 빵·우유·주스·커피 등이다.

최근의 조사를 보면 한국인 중 혈중 콜레스테롤 결핍자가 13%라고 한다. 그래서 뇌혈관 세포막이 영성하게 만들어져 쉽게 터지는 바람에 뇌졸중 환자가 많다는 학설도 있다. 가만히 있거나 그냥 먹으면 중간 정도는 되는데 냉면속의 반쪽짜리 완숙 달걀을 꺼내놓고 대단한 상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먹는 사람들을 보면 유식형이 무식형으로 변한다.

샤일록 같은 한국인이 되어서야

한국의 여성들은 미용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다먹고, 남성들도 정력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다 먹는다고 한다. 다시 한 번 강조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고 하니 녹용·인삼·지렁이·곰뽕이·살모사·곰발바닥이 아니고 바로 달걀인 것이다.

전술한 내용 외에도 달걀은 최고의 단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용에도 좋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언하면 여자들이 얼굴피부 미용을 위해 얼굴에 달걀 덮밥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수많은 정력 식품과 약품들이 요즘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범람하고 있다. 어찌보면 모두가 사기 식품이요, 사기 약품같다.

사기가 아닌 진짜 정력제(식품)는 무엇일까. 다음아닌 술과 달걀이니, 더 첨언하면 적당량의 술(반주)은 성홍몬의 분비를 높이고 달걀은 성홍몬의 합성자료로 사용된다.

의·약학적 이론배경 없이 그저 정력에 좋다는 것이 있으면 오대양 육대주를 살살이 뒤져 싹쓸이 하여 증오의 세계 쓰레기꾼 되지 말고, 그리고 돈이면 정력도 살 수 있다는 샤일록 같은 한국인 인상주지 말고 또한 약(식품)모르고 오·남용 하지 말도록 할지이다. **안지**

(가정복지와 여약사 '93. 4월 인용)

신 축 계 사 매 각

1. 위 치: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 평 수: 5,640평, 제사, 관리사 900평 (갓소형)
3. 계사명: 종계, 산란계 최적 그외 축사가함.
4. 금 액: 평당 5만 5천원
5. 기 타: 즉시대출 7천만원 가능 분할매각가함.

연락처: (0434) 32-7390
4301
(0434) 33-2900